

완벽주의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이 재 창 최 인 화†

홍익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완벽주의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살펴보고, 진로상담에서 내담자의 성격적인 특성과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된 진로사고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진로결정을 돕기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서울 및 경기지역 4년제 대학 4개교에 재학중인 남녀학생 360명이었으며, 이들에게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진로사고검사, 진로미결정척도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다음의 사실들이 밝혀졌다. 첫째, 완벽주의, 역기능적 진로사고 및 진로미결정은 성별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를 보였다. 둘째, 진로미결정 수준에 따른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차이는 완벽주의의 하위요인 중 부모기대를 제외하고 모든 하위척도에서 나타났다. 셋째,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진로사고 간에는 부분적인 상관을 보였다. 넷째,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진로미결정의확신성 및 미결정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완벽주의와 역기능적진로사고는 진로미결정과 확신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와 함께 본 연구의 의의와 앞으로의 연구방향, 그리고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완벽주의, 역기능적 진로사고, 진로사고검사, 진로미결정

이재창은 홍익대학교 교육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최인화는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임.

* 이 논문은 2004학년도 홍익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교신저자 : 최인화, (437-070)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미라보 매화아파트 101-909

Tel : 016-715-4082, E-mail : dlsghk87@hanmail.net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진로선택을 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을 좌우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사결정 문제이다(이재창, 2000). 따라서 올바른 진로상담의 개입을 위해서는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진로를 결정한 학생과 미결정인 학생간의 차이에 대한 원인은 지능, 학업능력, 인지양식, 자아개념, 자기존중감, 의사결정 양식(고향자, 1992; 이기학, 한종철, 1998; 조진숙, 2004)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배경과 가족관계(Palmer & Cochran, 1988)와 같은 개인 외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진로결정과정에서 불안, 애착,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개인차를 보이는 원인임을 시사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이현정, 1995; 조진숙, 2004). 이러한 개인의 성격은 진로결정이나 직무수행, 직업적 성공, 만족감 등에 영향을 주며 진로변동과 진로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수행불안, 결정못함, 미루기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완벽주의(심혜원, 1995)는 스스로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하는 진로결정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완벽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성은 성취해야 할 중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신의 수행 정도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부정적인 자동화 사고를 하게 된다. 이러한 자동화 사고는 인지, 정서, 행동, 자기 지각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Pacht, 1984). 완벽주의의 정서적인 특징은 비논리적이고 왜곡된 인지기제에 의해 과제수행에 직면했을 때 불안이 높아지고,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

해 과제 수행에 대한 통제감을 얻기 힘들며, 정서가 메마르고, 과제를 끝마친 후에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결과에 관계없이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실패감과 죄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성공하더라도 잘했다는 만족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경직된 느낌만 남게 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정옥경, 2000). 완벽주의자들의 행동적인 특징은 새로운 과제를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위협적인 상황으로 보아 과제수행 장면에서의 생산성과 수행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평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를 수행하기 전과 그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많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며 그러한 부정적인 정서상태가 수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완벽주의적 성격특징은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진로를 결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주는 주요한 진로관련 변인이라고 예상 할 수 있다.

지나치게 높은 기준,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등과 같은 완벽주의적인 사고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 미루기, 강박행동,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과 같은 행동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완벽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왜곡을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적응적인 것으로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정승진, 1999). Barrow와 Moore(1983)는 이러한 완벽주의적인 사고를 낳는 4가지 조건으로 부모가 비판적이거나 요구적일 때, 비판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부모의 기대, 수행기준을 암시할 때, 기준이 없을 때, 완벽한 부모가 완벽한 태도와 행동의 모델처럼 행동할 때라고 했다. 부모의 완벽성, 부모 자신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였을 때 완벽

성은 부모의 독재적인 양육방식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그들 부모에 대해 지각한 독재적인 양육점수도 완벽성과 관계가 있었다 (Macdonald, Martin, Flett, & Hewitt, 1995).

Krumboltz(1994)에 의하면 사람은 자신의 신념에 따른 방식으로 진로의사결정과 진로관련 행동을 수행한다고 하여 인지가 진로결정 및 진로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보여주었다. 개인이 어떻게 진로결정을 내리고 진로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정보를 활용하는지의 측면에서 인지를 진로발달에 적용한 인지적정보처리이론(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0)과 인지치료의 이론적 개념을 기초로 진로사고검사(Career Thoughts Inventory: 이하 CTI)가 개발되었다. Sampson, Peterson, Lenz와 Reardon(1992)은 인지를 진로상의 역기능적 인지로 개념화하였다. 진로사고검사가 측정하는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진로관련 정보처리와 진로의사결정과정 및 진로행동 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ampson, Peterson, Lenz, Reardon, & Saunders, 1996).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는 선택에 대한 불안감, 결정지연, 중요한 타인에 대한 의존 혹은 책임전가, 스트레스 대처전략으로서 성급하고 충분한 정보가 없는 선택, 불충분한 직무수행 또는 직업 불만족과 관련된 스트레스 대처전략으로서의 반복적인 직업변화, 직업탐색행동의 감소, 직업적 대안평가에 있어서의 고정관념, 자신의 선택에 대한 불만족감, 의사결정기술에 대한 자신감 부족, 선택의 적절성에 대한 확신부족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역기능적인 인지는 내담자의 혼란과 미결정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기능적인 사고는 무력감과 우울을 야기하는 정서적인 특징을 보이며 진로의사결정을 회피하게 만든다

(Dowd, 1995).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진로결정과 직업선택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내담자의 인지를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그 결과 역기능적 인지는 내담자의 혼란과 미결정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wis & Gillhouse, 1981; Nevo, 1987). 진로사고검사를 활용하여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연구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미결정과 같은 진로결정 관련변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이재창, 박미진, 최인화, 2002). 대학 전공을 결정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결정한 학생들보다 더 높은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고, 심리적 독립이 잘되어 있는 경우 진로의사결정과 진로문제 해결에서 보다 기능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민, 2004). 가족체계 내 갈등도 높은 역기능적인 진로사고와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최인화, 2003). 이는 역기능적 사고는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정확한 문제파악을 어렵게 만들고,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주고 이는 또다시 역기능적 사고를 강화시키는 순환과정을 만든다.

최근 진로문제와 관련된 연구의 주요경향중 하나는 인지적 접근이다(김수리, 2004). 역기능적인 인지는 내담자의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흥미발견을 어렵게 하며, 면접과 같은 진로준비행동을 방해한다고 보고하면서 Corbishley와 Yost(1989)는 진로발달의 인지적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Krumboltz(1994)에 의하면 인지가 진로결정 및 진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지적 왜곡과 비합리적인 신념을 특징으로 하는 완벽주의와 역기능적인 진로사고가

진로결정을 하는 과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을 해 볼 수 있다. 성격특성으로서의 완벽주의 및 진로탐색과 문제해결, 진로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지와 관련된 역기능적인 진로사고가 진로미결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파악한다면 진로상담에서 내담자의 특성, 내담자의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내담자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상담 전략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이론과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첫째, 완벽주의, 역기능적인 진로사고와 진로미결정 수준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둘째, 완벽주의와 역기능적인 진로사고는 진로미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위의 연구문제를 위하여 완벽주의, 역기능적 진로사고, 진로미결정에 대한 차이분석과 진로미결정 수준에 따른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변인간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간 영향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은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검증되었다.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된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매개변인으로 하고 진로 미결정과 확산성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4개교에 재학중인 남녀 학생 3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

었다. 연구대상자는 남학생이 157명(43.6%), 여학생이 203명(56.4%)이었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성향, 역기능적 진로사고, 진로미결정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차원적 완벽성 척도, 진로사고검사, 그리고 진로미결정 척도를 각각 실시하였다.

다차원적 완벽성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

Frost, Marten, Lahart 및 Rosenblate(1990)는 완벽성을 개인적인 요소뿐 아니라 대인관계적, 사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진 구인으로 보고 ‘비현실적인 기준과 실수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기본 개념으로 하여 다차원적인 완벽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완벽주의자들이 보이는 인지적, 행동적 특성 및 발달적 측면을 고려한 Frost 등(1990)의 다차원적 완벽성척도는 실수염려, 개인기준, 부모기대, 부모비난, 수행의심, 조직화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5문항으로 5점 Likert척도로 평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위차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임시래, 2003). ‘실수염려’는 실수를 실패와 동등하게 생각하고, 실수를 함으로써 타인의 존경과 관심을 잃게 될 것이라는 실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기준’은 스스로 매우 높은 기준을 갖고 있으며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평가기준으로서 높은 기준을 중요하게 보는 경향을 말한다. ‘부모기대’는 부모가 자신의 탁월함과 우월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스스로의 지각

을 말하며 ‘부모비난’은 부모의 기대는 맞추기 어려우며 일의 수행에 대해 부모로부터 비난 받아 왔다는 지각이다. ‘수행의심’은 자신에게 과업을 완수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반복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조직화’는 정리정돈, 조직하는 것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정서와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승진(199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각 차원별 내적 일치도 계수는 .81에서 .87이며, 전체 내적 일치도 계수는 $\alpha = .86$ 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신뢰도를 산출해 본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각 하위척도에서 .68~.80, 전체척도에서 .76으로 나타났다.

진로사고검사(Career Thoughts Inventory: CTI)

진로사고검사(CTI)는 진로문제해결과 진로의 사결정에 손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진로와 관련된 역기능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Sampson 등(1996)에 의해 개발된 검사이다. 진로사고검사는 인지적 정보처리이론과 인지치료를 이론적 근거로 개발되었으며 총 48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3점)’까지 응답하게 되었고 전체 응답 중 무응답이 5개 이상이면 무효 처리된다(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3).

총점이 높을수록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많고 자신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여 자신의 흥미나 능력, 직업적 성격을 이해하기 어려워 이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효과적인 진로문제해결과 진로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전반적인 역기능적 사고를 나타내는 의사결정혼란(Decision Making Confusions),

수행불안(Commitment Anxiety), 외적갈등(External Conflict) 등의 3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재창 등(200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계수는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의사결정혼란 .76, 수행불안 .61, 외적갈등 .55, 전체 .75였으며 내적 신뢰도 계수는 의사결정혼란 .90, 수행불안 .62, 외적갈등 .82, 전체 .9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하위척도에서 의사결정혼란 .89, 수행불안 .85, 외적갈등 .63으로 나타났고, 전체로는 .74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 CDS)

진로결정 척도는 Osipow, Carney, Winer, Yanico와 Koschier(1980)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확신성 척도와 미결정 척도의 두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항목 1과 2는 확신성 척도를 나타내고, 항목 3-18은 미결정 척도를 나타낸다. 미결정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는 Likert식 4점 척도형태의 18문항과 자유반응식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반응항목은 제외하였다. 확신성 척도는 전공이나 진로와 관련된 결정에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며, 미결정 척도는 경험적 연구에서 추출된 16가지 미결정의 선행조건을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미결정상태를 의미한다.

진로결정척도는 고향자(199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CDS의 신뢰도 계수는 검사-재검사 신뢰도 .79, 반분신뢰도 .80, Cronbach's α .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확신성척도 .78, 미결정척도 .85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순수한 의미의 미결정

표 1. 확신성 및 미결정 점수의 해석적 가정

		미결정 척도		
		상(84%초과)	중(16%-84%)	하(16%미만)
확 신 성 척 도	상(84%초과)	결과의 신뢰도가 낮음(G1)	구체적인 평가가 더 필요(G2)	진로결정이 거의 된 상태(G3)
	중(16%-84%)	구체적인 평가가 더 필요(G2)	구체적인 평가가 더 필요(G2)	구체적인 평가가 더 필요(G2)
	하(16%미만)	진로결정을 위한 도움이 필요(G4)	구체적인 평가가 더 필요(G2)	결과의 신뢰도가 낮음(G1)

집단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완벽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Osipow(1986)가 제안한 해석적 가정과 같은 방식으로 진로결정 척도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CDS의 각 척도점수분포가 Osipow가 제안한 15%내외로 구분되지 않아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Osipow가 제시한 CDS 점수에 대한 해석적 가정은 표 1과 같다.

결 과

성별에 따른 완벽주의, 역기능적 진로사고, 진로 미결정의 차이분석

성별에 따른 완벽주의, 역기능적인 진로사고와 진로미결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완벽주의는 성별에 따라서 하위척도 중 실수염려($p < .05$)와 부모비난($p < .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역기능적인 진로사고는 수행불안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p < .01$), 진로미결정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수준에서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진로결정 수준에 따른 완벽주의 및 역기능적진로 사고의 차이분석

Osipow(1986)가 제안한대로 진로결정척도의 하위척도점수로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하위집단을 추출해내고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진로사고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표 3은 각 집단의 구분점수 및 해당빈도이다.

진로미결정척도 점수로 진로결정수준별 집단을 구분한 후 완벽주의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집단별로 완벽주의의 하위척도 중 부모기대를 제외하고 모든 하위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진로결정이 거의 된 집단(G3)이 개인기준, 부모기대와 조직화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집단(G4)은 실수염려, 부모비난, 수행의 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완벽주의의 전체 점수에서도 진로결정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집단(G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별 집단이 역기능적인 진로사고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집단은 역기능적

표 2. 성별에 따른 완벽주의, 역기능적 진로사고, 진로미결정의 차이분석

구분	성별	N	M	SD	t	
완벽주의	실수염려	남	157	28.45	5.91	-2.381*
		여	203	30.06	6.67	
	개인기준	남	157	16.13	3.46	-1.427
		여	203	16.68	3.70	
	부모기대	남	157	13.18	3.04	-1.829
		여	203	13.80	3.24	
	부모비난	남	157	12.16	3.59	3.174**
		여	203	10.95	3.58	
	수행의심	남	157	12.68	3.07	-.248
		여	203	12.76	2.82	
	조직화	남	157	22.75	5.08	-1.546
		여	203	23.60	5.25	
	전체	남	157	105.36	15.61	-1.378
		여	203	107.84	17.94	
역기능적 진로사고	의사결정혼란	남	157	13.36	7.42	-.125
		여	203	13.45	7.11	
	수행불안	남	157	13.54	5.64	-2.832**
		여	203	15.19	5.32	
	외적갈등	남	157	5.73	2.48	-.602
		여	203	5.89	2.50	
	전체	남	157	55.22	21.69	-1.440
		여	203	58.43	19.71	
진로 결정	확신성	남	157	5.18	1.55	-.521
		여	203	5.26	1.44	
	미결정	남	157	36.06	8.17	-.722
		여	203	36.65	7.25	

** $p < .01$, * $p < .05$

인 진로사고 전체 및 하위척도와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결정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집단(G4)이 역기능적인 사고가 가장 높은 것으로

표 3.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집단구분

		미결정 척도		
		상 41점이상(31.6%)	중	하 33점이하(33.2%)
확 신 성 척 도	상 6점이상(17.6%)	G1 38명(10.6%)	G2	G3 89명(24.7%)
	중	G2	G2 156명(43.3%)	G2
	하 4점이하(19.7%)	G4 77명(21.4%)	G2	G1 38명(10.6%)

주. G1 : 결과의 신뢰도가 낮은 집단, G2 : 구체적인 평가가 더 필요한 집단
 G3 : 진로결정이 거의 된 집단, G4 : 진로결정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집단

표 4. 진로결정 수준별 완벽주의의 차이분석

구분	G1	G2	G3	G4	F	Scheffé
실수염려	28.08(7.14)	28.89(5.74)	28.91(6.14)	31.44(7.17)	3.735*	1=2 1=3 1=4 2=3 2≠4 3=4
개인기준	15.32(3.46)	16.22(3.63)	17.87(3.46)	15.79(3.35)	7.240***	1=2 1≠3 1=4 2≠3 2=4 3≠4
부모기대	13.24(3.39)	13.37(3.21)	14.02(2.99)	13.42(3.17)	.983	
부모비난	10.36(3.80)	11.47(3.42)	10.45(3.39)	13.23(3.61)	10.331***	1=2 1=3 1≠4 2=3 2≠4 3≠4
수행의심	12.61(3.13)	12.49(2.76)	12.28(2.98)	13.77(2.88)	4.410**	1=2 1=3 1=4 2=3 2≠4 3≠4
조직화	21.63(6.68)	23.23(4.71)	24.79(5.15)	22.19(4.91)	5.058**	1=2 1≠3 1=4 2=3 2=4 3≠4
전체	101.23(19.84)	105.67(16.14)	108.31(15.73)	109.86(17.97)	2.686*	1=2 1=3 1≠4 2=3 2=4 3=4

주. ()안은 표준편차
 * $p < .05$, ** $p < .01$, *** $p < .001$

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이 거의 된 집단(G3) 미결정 집단 간 역기능적인 진로사고에서 큰
 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진로결정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표 5. 진로결정 수준별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차이분석

구분	G1	G2	G3	G4	F	Scheffé
의사결정혼란	12.26(6.95)	14.36(4.80)	5.99(4.89)	20.64(5.40)	111.555***	1=2 1≠3 1≠4 2≠3 2≠4 3≠4
수행불안	14.55(6.03)	15.16(4.06)	9.21(4.50)	19.12(3.63)	74.360***	1=2 1≠3 1≠4 2≠3 2≠4 3≠4
외적갈등	6.39(2.46)	6.07(2.15)	3.98(1.94)	7.17(2.52)	31.393***	1=2 1≠3 1=4 2≠3 2≠4 3≠4
전체	57.51(20.19)	59.79(12.55)	34.29(15.29)	76.92(13.62)	121.617***	1=2 1≠3 1≠4 2≠3 2≠4 3≠4

주. ()안은 표준편차

*** $p < .001$

완벽주의, 진로사고와 진로미결정간의 상관분석

완벽주의와 진로사고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상관분석결과 전체적으로는 진로사고검사의 하위척도인 의사결정혼란은 완벽주의척도 중 실수염려, 부모비난, 수행의심 및 완벽주의 전체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개인기준과 조직화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수행불안은 실수염려, 부모비난, 수행의심 및 전체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외적갈등은 실수염려, 부모비난, 수행의심, 완벽주의 전체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개인기준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역기능적인 진로사고 전체는 실수염려, 부모비난, 수행의심 및 완벽주의 전체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개인기준 및 조직화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남자의 경우 의사결정혼란은 완벽주의의 하

위척도와 실수염려, 부모비난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으며, 개인기준, 조직화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수행불안은 실수염려, 부모비난, 수행의심, 완벽주의 전체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외적갈등은 실수염려, 부모비난, 수행의심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개인기준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역기능적인 진로사고 전체와는 실수염려, 부모비난, 수행의심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개인기준과 조직화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는 의사결정혼란은 실수염려, 부모비난, 수행의심, 완벽주의 전체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개인기준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수행불안은 실수염려, 부모비난, 수행의심 및 완벽주의 전체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외적갈등은 실수염려, 부모비난, 수행의심, 완벽주의 전체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표 6. 완벽주의와 진로사고간의 상관분석

	구분	실수염려	개인기준	부모기대	부모비난	수행의심	조직화	전체
전체	의사결정혼란	.268***	-.193***	-.027	.401***	.217***	-.131*	.138***
	수행불안	.318***	-.003	.084	.241***	.291***	-.054	.220***
	외적갈등	.186***	-.104*	.082	.352***	.207***	-.042	.161**
	진로사고전체	.338***	-.139**	.027	.395***	.275***	-.128*	.198***
남자	의사결정혼란	.210**	-.263**	-.146	.440***	.192*	-.203*	.065
	수행불안	.247**	-.100	.021	.280***	.341***	-.103	.173*
	외적갈등	.190*	-.180*	.022	.386***	.178*	-.078	.134
	진로사고전체	.293***	-.201*	-.060	.424***	.287***	-.175*	.154
여자	의사결정혼란	.312***	-.143*	.062	.382***	.238**	-.077	.189**
	수행불안	.349***	.052	.109	.265***	.245***	-.039	.239**
	외적갈등	.180*	-.055	.121	.345***	.232**	-.020	.177*
	진로사고전체	.364***	-.105	.082	.405***	.262***	-.104	.223**

* $p < .05$, ** $p < .01$, *** $p < .001$

표 7.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간의 상관

	구분	실수염려	개인기준	부모기대	부모비난	수행의심	조직화	전체
전체	확신성	-.086	.237***	.113*	-.220***	-.117*	.209***	.036
	미결정	.246***	-.127*	.022	.294***	.245***	-.084	.149**
남자	확신성	-.054	.271**	.188*	-.332***	-.118	.300***	.074
	미결정	.228**	-.170*	-.058	.300***	.269**	-.130	.117
여자	확신성	-.117	.209**	.052	-.124	-.117	.135	.005
	미결정	.259***	-.099	.081	.309***	.223**	-.053	.172*

* $p < .05$, ** $p < .01$, *** $p < .001$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표 7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확신성은 완벽주의 하위척도와 개인기준, 부모기대, 조직화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으며, 부모비난 및 수행의심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미결정은 실수염

려, 부모비난, 수행의심, 완벽주의 전체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개인기준에서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남자는 확신성은 개인기준, 부모기대, 조직화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부모비난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미

결정은 실수염려, 부모비난, 수행의심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개인기준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여자는 확신성이 개인기준과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미결정은 실수염려, 부모비난, 수행의심, 완벽주의 전체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진로미결정에 대한 완벽주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회귀분석

완벽주의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결정수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완벽주의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확신성에는 개인기준이 5.6%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부모비난이 6.5%, 수행의심이 1.5%의 부적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화가 1.8%의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결정에는 부모비난이 8.6%의 정적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적으로 개인기준은 2.8%

의 부적영향력을, 실수염려와 수행의심은 각각 4.8%, 1.9%의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기능적인 진로사고에 대한 완벽주의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먼저 전체적으로는 의사결정혼란에는 부모비난이 16.1%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으며, 추가적으로는 개인기준(6.3%), 부모기대(1.0%)가 유의미한 부적의 영향력을 나타냈고, 실수염려(5.0%), 수행의심(0.9%)이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불안은 실수염려가 10.1%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조직화(2.8%), 개인기준(0.9%) 등이 부적의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수행의심(3.2%)이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냈다. 외적갈등은 부모비난이 12.4%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적으로 개인기준(2.4%)이 부적의 영향력 미치고 수행의심(2.3%)이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사고검사 전체에 대해서는 부모비난이 15.6%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개인기준(4.0%)과 조직화(1.7%)가 부적의 영

표 8.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완벽주의의 회귀분석

구분	종속변인	독립변인	R	R ²	R ² cb	F	Beta	t
전체	확신성	개인기준	.237	.056	.056	21.270***	.237	4.612***
		부모비난	.348	.121	.065	24.523***	-.257	-5.126***
		수행의심	.369	.136	.015	18.701***	-.133	-2.515*
		조직화	.393	.154	.018	16.186***	.158	2.757**
미결정	부모비난	개인기준	.294	.086	.086	33.822***	.294	5.816***
		실수염려	.339	.115	.028	23.128***	-.170	-3.383**
		수행의심	.404	.163	.048	23.091***	.272	4.527***
		수행의심	.426	.181	.019	19.670***	.160	2.835**

*p<.05, **p<.01, ***p<.001

표 9. 역기능적인 진로사고에 대한 완벽주의의 회귀분석

구분	종속변인	독립변인	R	R ²	R ² cb	F	Beta	t
전체	의사결정 혼란	부모비난	.401	.161	.161	68.668***	.401	8.287***
		개인기준	.473	.224	.063	51.397***	-.253	-5.366***
		실수염려	.523	.274	.050	44.754***	.278	4.966***
		부모기대	.533	.284	.010	35.212***	-.117	-2.249*
		수행의심	.542	.294	.009	29.414***	.115	2.177*
	수행불안	실수염려	.318	.101	.101	39.969***	.318	6.322***
		조직화	.360	.129	.028	26.292***	-.178	-3.382**
		수행의심	.402	.161	.032	22.660***	.214	3.679***
		개인기준	.413	.171	.009	18.109***	-.116	-1.974*
		외적갈등	부모비난	.352	.124	.124	50.684***	.352
전체	외적갈등	개인기준	.384	.148	.024	30.927***	-.155	-3.148**
		수행의심	.413	.171	.023	24.424***	.163	3.143**
	전체	부모비난	.395	.156	.156	64.304***	.395	8.019***
		개인기준	.443	.196	.040	42.196***	-.202	-4.136***
		실수염려	.526	.276	.080	43.945***	.356	6.192***
		수행의심	.538	.289	.013	35.009***	.134	2.492*
		조직화	.553	.306	.017	30.243***	-.152	-2.870**

* $p < .05$, ** $p < .01$, *** $p < .001$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수염려(8.0%)와 수행의심(1.3%)이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모형

완벽주의, 역기능적진로사고, 진로결정수준 간에 인과 구조를 밝히고자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독립변수는 완벽주의, 매개변수는 역기능적진로사고, 종속변수는 미결정과 확신성이다.

연구방법의 계산방법은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일반적인 분포를 알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모집단이 다변량 정규분포를 이룰 때 사용하는 추정방법인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e)을 사용하였다.

적합도 지수로는 χ^2 , χ^2/df , 표준적합지수(NFI), 비표준적합지수(NNFI), 원소간표준차이(RMSEA) 5가지를 이용하였다. χ^2/df 값은 5이하이면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며 표준적합지수(NFI)와 비표준적합지수(NNFI)는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여겨진다. 원소간표준차이(RMSEA)는 .05이하이면 적합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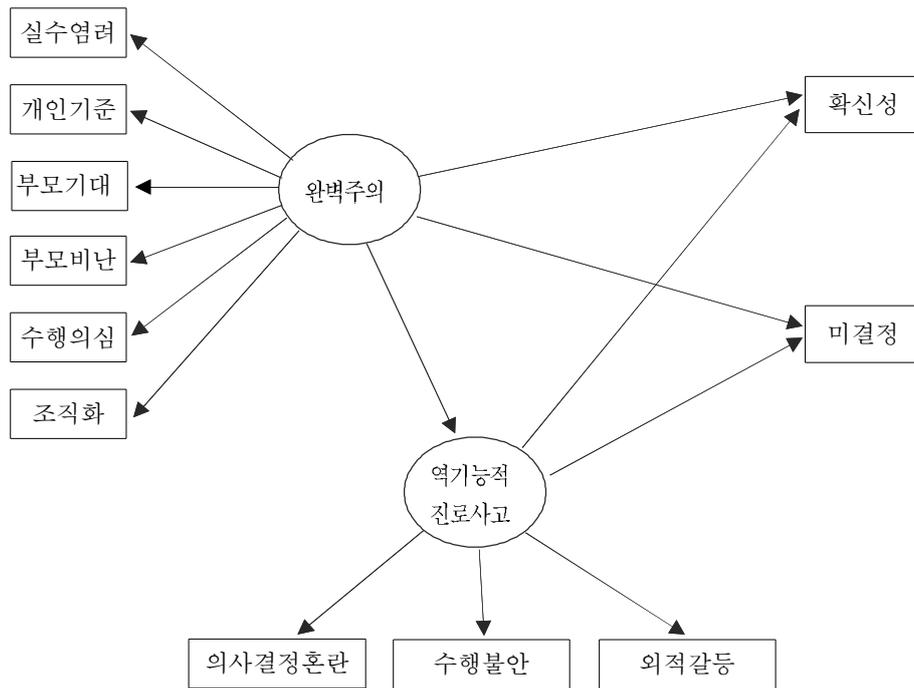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좋은 모형 .08이하이면 적절한 모형으로 해석된다(홍세희, 2000). 연구모형은 각 지수들의 기준값을 충족시켰을 때만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게되는데 이 기준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김수리, 2004). 본 연구에서의 적합도 지수는 표 10과 같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검증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 $\chi^2=275.396$, $\chi^2/df=6.717$, $p=.000$ 이며, NFI=.977, NNFI=.968, RMSEA=.126로 보고되었다. 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모형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표준적합지수(NFI)와 비표준적합지수(NNFI)가 높은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므로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고 분석하였다.

표 10. 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χ^2/df	p	NFI	NNFI	RMSEA	RMSEA (90%신뢰구간)
검증모형	275.396	41	6.717	.000	.977	.968	.126	(.112-.141)

주. NFI = Normed fit index; NNFI = Non-normed fit index; RMSEA = 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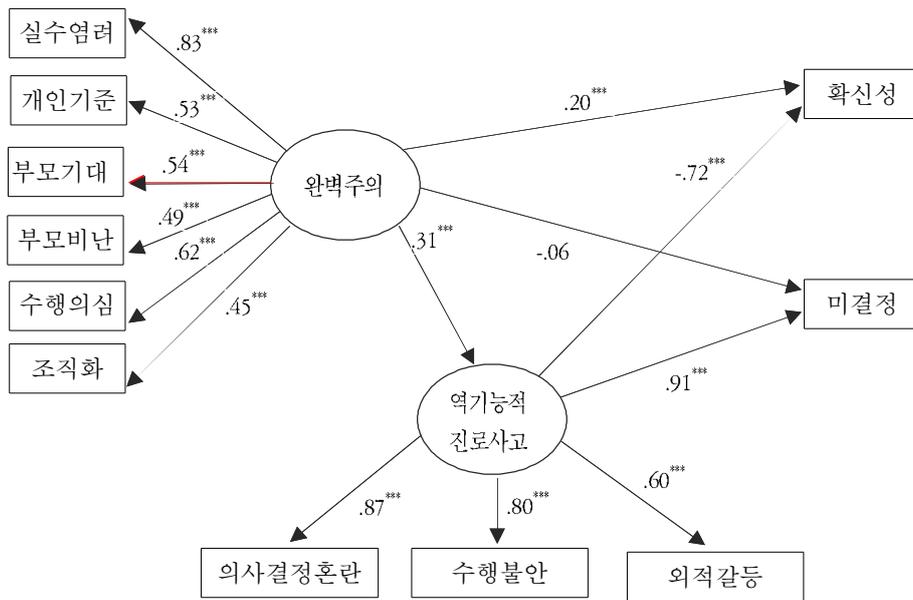


그림 2. 검증모형

검증모형의 구조방정식 경로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각 그림에서 직선의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에 해당되며 이 값은 각 측정변수에 대해 최대우도법에 의하여 추정되었다. 역기능적인 진로사고와 확신성에 완벽주의가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인 진로사고를 하며, 확신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신성과 미결정에는 역기능적인 진로사고가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역기능적인 진로사고가 높을수록 확신성이 낮고, 미결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확신성과 미결정에 완벽주의와 역기능적인 진로사고가 미치는 유의미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전체효과는 표 11, 표 12와 같다.

표 11, 표 12와 같이 완벽주의는 미결정에 유의한 직접효과가 없었으나, 확신성에 정

적인 직접효과(.201), 역기능적인 진로사고에 정적인 직접효과(.314)를 보였다. 완벽주의는 미결정에 정적인 간접효과(.277), 확신성에 부적인 간접효과(-.225)를 보였다. 역기능적인 진로사고는 미결정에 정적인 직접효과(.913)와 확신성에 부적인 직접효과(-.715)를 나타냈다. 전체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완벽주의는 미결정에 .228, 확신성에는 -.023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개인적인 요소뿐 아니라 대인관계적, 사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다차원적 특성을 측정하는 완벽주의가 진로미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험을 검증함으로써 성격특성과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를 이

표 11. 검증모형의 분석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p
확신성 ← 완벽주의	.057	.201	.015	3.921	.000
미결정 ← 완벽주의	-.086	-.059	.055	-1.573	.116
확신성 ← 역기능적진로사고	-.170	-.715	.012	-14.110	.000
미결정 ← 역기능적진로사고	1.112	.913	.053	20.885	.000
역기능적진로사고 ← 완벽주의	.374	.314	.076	4.902	.000
실수염려 ← 완벽주의	1.000	.827			.000
개인기준 ← 완벽주의	.364	.534	.040	9.122	.000
부모기대 ← 완벽주의	.323	.539	.035	9.201	.000
부모비난 ← 완벽주의	.337	.490	.040	8.390	.000
수행의심 ← 완벽주의	.342	.617	.033	10.457	.000
조직화 ← 완벽주의	.444	.452	.057	7.737	.000
의사결정혼란 ← 역기능적진로사고	1.000	.868			.000
수행불안 ← 역기능적진로사고	.698	.797	.038	18.382	.000
외적갈등 ← 역기능적진로사고	.239	.604	.019	12.437	.000

표 12. 검증모형의 변인별 영향력

	완벽주의	역기능적 진로사고
전체효과	.228	.913
미결정	직접효과 -.059	.913
	간접효과 .277	.000
확신성	전체효과 -.023	-.715
	직접효과 .201	-.715
	간접효과 -.225	.000
역기능적 진로사고	전체효과 .314	.000
	직접효과 .314	.000
	간접효과 .000	.000

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진로상담시 고려해야할 개인의 특성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서 완벽주의, 역기능적인 진로사고 및 진로미결정은 부분적인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완벽주의 성향 중 실수염려에서는 여자가, 부모비난에서는 남자가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았다. 역기능적인 진로사고에서는 여자가 수행불안에서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남자는 부모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자가 남자보다 수행에 있어서 망설이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나라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상 남자는 한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인식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여성에게는 직업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있다는 여학생들의 인식(고향자, 강혜원, 2003)이 한 번의 선택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야기하여 합리적인 진로사고를 방해하고 선택을 회피하게 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는 후기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라 가족변인을 함께 연구해야 된다(박수길, 2001)는 주장을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진로상담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개인변인 및 가족변인에 따른 상담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진로미결정 수준에 따른 완벽주의와 역기능적인 진로사고와의 차이에서는 완벽주의의 하위요인 중 부모기대를 제외하고 모든 하위척도에서 진로미결정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즉 진로가 결정된 집단에서는 개인기준, 부모기대, 조직화가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미결정 집단에서는 실수염려, 부모비난, 수행의심에서 높게 나타나 진로미결정의 수준에 따라서 완벽주의 내용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역기능적인 진로사고의 모든 하위척도는 진로미결정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미결정에는 인지적인 사고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예상할 수 있으므로, 진로미결정자에 대한 인지적인 사고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역기능적인 진로사고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역기능적 인지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인지적 재구성 과정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진로상

담에서도 내담자의 역기능적인 인지를 파악하여 재구성하는 학습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완벽주의와 역기능적인 진로사고 간에는 부분적인 상관성이 있었다. 부모기대는 역기능적인 진로사고와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개인기준과 조직화는 역기능적인 진로사고의 하위요인 중 의사결정혼란이나 외적갈등에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자신의 성취와 자기 존중감을 위해 높은 기준을 세우거나 조직이나 질서를 강조하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의사결정을 할 때 혼란스러워 한다거나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 완벽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볼 수 있다. 즉 개인이 가진 자존감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실수염려와 부모비난, 수행의심은 역기능적인 진로사고와 강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하위요인의 특성은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대인관계 및 사회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만족스럽지 못한 느낌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왜곡된 막연한 느낌이나 생각을 인식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집단상담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간에도 부분적인 상관을 보였다. 실수염려, 부모비난, 수행의심 등은 진로 미결정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개인기준, 부모기대 등은 확산성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진로미결정이 높은 사람은 높은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상황을 가능하면 회피하려고 하거나 결정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 미루는 행동을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

다. 따라서 진로상담에서는 진로미결정의 원인이 완벽주의 성향의 어떤 부분과 관계되는지를 알아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진로미결정에 대한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영향력에 대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확신성은 개인기준, 부모비난, 수행의심, 조직화의 순으로 영향력이 있었다. 진로미결정에서는 부모비난, 개인기준, 실수염려, 수행의심의 순으로 영향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진로미결정은 부모의 비판적인 태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또한 역기능적인 진로사고에 대한 결과에서도 전체적으로 부모비난이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완벽주의의 특성 중 부모와 관계된 완벽주의 성향이 진로미결정 및 역기능적인 진로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가족체계 유형과 역기능적인 진로사고 간에 상관이 있음을 나타내는 연구결과(최인화, 2003)와 부모와의 높은 심리적인 독립을 이룰 때 역기능적인 진로사고를 덜하고 있음을 밝힌 연구결과(고향자 등, 2003)와 함께 가족기능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역기능적인 진로사고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완벽주의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을 검증하였다. 완벽주의는 진로미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역기능적인 진로사고를 매개로 하였을 때는 유의미한 정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확신성에는 완벽주의는 유의미한 정적인 직접효과를 나타냈지만, 역기능적인 진로사고를 매개로 하였을 때는 유의미한 부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회귀분석에서 완벽주의의 하위요인 중 역기능

적인 진로사고 및 진로미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과 부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는 것에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완벽주의는 긍정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성격변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완벽주의 성향은 진로결정에 확신을 갖게 하나, 역기능적 사고와 완벽주의 성향이 공존한다면 진로결정을 어렵게 하고,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상담에서 성격특성을 활용하고자 할 때 완벽주의 성격을 가진 내담자의 역기능적 사고를 파악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진 완벽주의와 역기능적 진로사고 및 진로미결정과 관계를 검증하고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경험적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성격특성이 진로결정과 관계될 것이라는 예측을 검증했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진로결정의 인지적 변인인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성격특성 중 인지적인 특성을 갖는 완벽주의와의 관계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과정 및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내담자에 따른 차별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수도권지역의 한정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학생들에게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성격적인 특징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하였지만 다양한 변인 중의 하나로 더 많은 성격적인 요인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성격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경험적인 생각을 구체화시키는데 의의가 있으나 성격적인 요인이 진로미결정 과정에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향자, 강혜원 (2003).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역기능적 진로사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77-293.
-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0).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수리 (2004).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과의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수길 (2001).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혜원 (1995). 완벽주의 성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민 (2004). 대학생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독립 및 역기능적 진로사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 한종철 (1998). 고등학생의 진로태도 성숙과 개인적 특성 및 심리변인들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0(1), 167-189.
- 이재창 (2000). 대학진로지도의 방향과 실천방안. 학생생활연구, 13, 1-23. 서울: 홍익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2). 역기능적 진로사과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01-414.
- 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3). 진로사과검사의 한국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529-550.
- 이현정 (1995).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통제소재 및 불안에 따른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시래 (2003). 교사들의 완벽주의 성향과 사회적 문제 해결력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승진 (1999). 완벽성 감소를 위한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옥경 (2000). 완벽주의가 불안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진숙 (2004).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인화 (2003). 대학생의 가족체계유형과 역기능적 진로사과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17, 61-80. 서울: 홍익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지수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Barrow, J. C., & Moore, C. A. (1983). Group interventions with perfectionistic thinking.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1, 612-615.
- Corbishley, M. A., & Yost, E. B. (1989). The effects of group and individual vocational counseling on career indecision and personal indecisivenes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7, 39-42.
- Dowd, T. D. (1995). Cognitive career assessment:

- Concepts and application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3, 1-20.
- Frost, R. O., Marten, P. A.,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49-468.
- Krumboltz, J. D. (1994). The career beliefs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Development*, 72, 424-428.
- Lewis, R. A., & Gilhousen, M. R. (1981). Myths of career development: A cognitive approach to vocational counseling.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9, 296-299.
- Macdonald, S., Martin, T. R., Flett, G. L., Hewitt, P. L. (1995). Perfectionism, parenting styles and family satisfaction. *Canadian Psychology*, 36, 239-259.
- Nevo, O. (1987). Irrational expectations in career counseling and their confronting argumen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5, 239-250.
- Niles, S. G., & Hartung, P. J. (2000). Emerging career theories. In D. A. Luzzo(Ed). *Career counseling of college student: An empirical guide to strategies that work*(pp. 23-4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Osipow, S. H. (1986). *The Career Decision Scale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Osipow, S. H., Carney, C. G., Winer, J., Yanico, B., & Koschier, M. (1980). *The Career Decision Scale*. Columbus, OH: Marstthon Counseling and Press.
- Pacht, A. R. (1984). Reflections on perfec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386-390.
- Palmer, S., & Cochran, L. (1988). Parents as agents of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Development*, 35, 71-76.
- Sampson, J. P. Jr., Peterson, G. W., Lenz, J. G., & Reardon, R. C. (1992). A cognitive approach to career services: Translating concepts into practic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1, 67-72.
- Sampson, J. P. Jr., Peterson, G. W., Lenz, J. G., & Reardon, R. C. & Saunders, D. E. (1996). *Career Though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원 고 접 수 일 : 2006. 9. 5
수정원고접수일 : 2006. 10. 30
게 재 결 정 일 : 2006. 11. 11

The Relationship Among Perfectionism,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and Career Indecision

Jae-Chang Lee

In-Hwa Choi

Hongi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among perfectionism,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and career indecision.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360 college students sampled from the universities in Seoul and Kyeonggi-do. The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Career Thoughts Inventory, and Career Indecision Scale were used to measure perfectionism,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and career indecision, respectively.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mong perfectionism, dysfunctional career thought and career indecision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Second, there also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erfectionism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by career indecision levels. Third, perfectionism was correlated with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Fourth, career certainty was affected by personal standards, parental criticism, doubts about actions, and organization. Indecision was affected by parental criticism, personal standards, concern over mistakes, and doubts about actions. Fifth, perfectionism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d career indecision.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ome sugges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and counseling practice.

Key words : perfectionism, dysfunctional career thought, career thoughts inventory, career indecision